

# 국기문란 vs 또 색깔론... '송민순 회고록' 충돌

### “참여정부, 2007년 UN 北 인권결의안 北 의전 문고 기권” 여 “北과 내통”... 文 “내통은 새누리 전문”... 대선 겨냥 공방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고 기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주말 내내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표결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날을 세운 반면 더민주주는 여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또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를 편다고 일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문 전 대표는 “치열한 내부 투쟁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도리어 역공을 취해 양측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졌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재벌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민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새누리당과 더민주주는 양당 대표가 전면에서 격렬한 표현을 동원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같은 날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해야 할 국정조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회고록을 놓고 누구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절대 권력 집단을 보면서 이제 요즘은 코미디언도 돈 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양당의 ‘입’도 충돌원했다. 새누리당 업무협약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일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결재받은 것은 국기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태”라며 엄중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에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깎아내리고 권력 게이트에 걸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 역공을 취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1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대단한 모욕’이라

며 강력 반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내통이라 하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이라며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좀 다른 정치 합시다”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더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국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광주시 특강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 당직자·당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당과 정권교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자 없는 대선판... 합종연횡 시나리오 무성

### 안철수-유승민, 안철수-반기문 연대론 ‘술술’

### 개헌 고리로 ‘제3지대론’... 연정 가능성도 나와

19대 대선을 1년 2개월 앞둔 정치권에서 대선후보 간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후보 지지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선훈이 퍼져가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약점이 있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이 바탕이 되고 있다. 또 이 틈새를 파고들려는 다른 후보들의 새판짜기 시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후보 간 움직임에

서 주목을 받은 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다. 서로 정책에 대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연대 가능성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또 비박(비박근혜)·비문(비문재인) 후보 간 연대론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더민주 김부겸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그 대상이다. 모두 제3지대론에서 헤쳐모여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와 맞물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합종연횡론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한 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민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일찌감치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론을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과 안 전 대표 간의 연대론을 더민주 민병두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친박(친박근혜)계의 선택지로 소개하면서 여의도를 들쭉여놓았다. 여권과 야권의 일각이 힘을 합쳐 개헌하고 반 총장은 ‘외치’, 안 전 대표는 ‘내치’를 맡는 구상이다.

또 여권 내에선 양대 비박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 간 연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반 총

장에게 지지율이 크게 뒤지는 두 주자가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경선 룰 협상 등에서 ‘연대’를 꾀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함께 야권 내에서는 같은 친노(친 노무현)를 기반으로 대권 경쟁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간에 대선경선 연대를 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16일 “정치권에 다양한 연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이번 대선판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봄이 돼야 판도가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지지도 26%...취임후 최저

### 한국갤럽 조사 4주연속 하락...새누리당 지지율도 최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26명(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을 상대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26%에 머물렀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9월 둘째 주 33%에서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41%)가 긍정 평가(4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19세~

40대의 지지율은 11~12%에 불과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의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은 올해 3분기 평균 32%로, 같은 시기 이명박(37%)·김영삼(34%)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고 김대중(28%)·노무현(16%)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28%의 지지율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다른 정당의 지지율은 더민주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3%,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정청래 출판기념회 ‘독설 릴레이’

### “삼성동서 감옥 같 분 있어”... “일주일 단식하고 엄살”

지난 15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위법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더민주의 범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에서 “‘파란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 독설을 내뿜었다.

방승인 김갑수씨는 “대선 승리 이후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해

야 한다”며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 내란(內亂)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 후보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24일간 단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느 누구는 일주일 단식하고 죽네 사네 하는 데...”라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운행해야”

### 국민의당 주승용



다. 주 의원은 이어 “당장 SRT가 전라선을 운행할 수 없다면, 경부선과 호남선에 편성된 KTX 일부를 전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SRT)의 전라선 운영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노선별 운행횟수는 주말 왕복 기준 경부선 139회, 호남선 66회, 전라선 20회로, 전라선은 이용객이 49% 늘었고 올해에는 60% 증가가 예상돼 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12월 개통하는 SRT도 전라선 운행이 불가피한데 운행 면허를 변경해 전라선을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으로 옮기거나 운행횟수를 늘리고, 부족한 열차를 빨리 구입해서라도 전라선을 증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38명은 지난 9월 SRT 전라선 노선 허가 및 KTX 운행 횟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